

PA-44

태풍 발생확률과 국내 영향 태풍의 경로 분석

김준환^{1*}, 권동원¹, 백재경¹, 상완규¹, 신평¹, 조정일¹, 서명철¹

Junhwan Kim^{1*}, Dongwon Kwon¹, Jae Kyeong Baek¹, Wangyu Sang¹, Pyeong Shin¹, Jungil Cho¹, Myungchul Seo¹

¹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

¹Dep. of Crop production and physiology, NICS, RDA, 55365, Korea Rep.

[서론]

벼 작황예측 조기에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태풍과 같은 재해가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. 이러한 예측시 발생할 수 있는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불확실을 처리하기 위해 태풍의 발생 확률과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보해야한다.

[재료 및 방법]

태풍에 대한 정보는 기상청 과거태풍 정보(weather.go.kr/w/typhoon/typ-history.do)로부터 얻었으며 발생시점부터 소멸시점까지의 시간과 경로를 모두 조사하였다. 조사시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태풍으로 한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는 총 63건이었으며 매년 3.2개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벼의 수량에 영향을 준 태풍은 약 11건으로 추정되었다. 이중 6건은 19년 3건과 20년 3건 발생하였다. 태풍의 경로 발생 확률 대한 분석을 위해 8월말~9월초의 태풍 이동 경로를 위경도 1도 간격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이동 경로를 보인 경우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발생에 대한 확률은 가능해도 경로에 대한 확률 계산은 큰 의미가 없었다. 따라서 태풍 발생전에 지역별 태풍발생 피해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작황예측을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공동연구사업(사업번호: PJ016018012021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Corresponding author: E-mail, sfumato@korea.kr Tel. +82-63-238-5283